

사회

# 천안함 충격 채 가시기 전에 진도 앞바다서 또 참사라니...

## 해군 링스헬기 추락...긴박한 실종자 3명 수색 현장

16일 오후 2시30분 진도 서항 앞 바다. 매서운 바닷바람과 짙은 적막감을 뚫고 군함과 해경 경비정이 분주하게 바다와 육지 사이를 오갔다. 전날 추락한 해군 소속 링스(Lynx) 헬기 탑승자들에 대한 수색작업 현장은 하루종일 긴박감이 감돌았다.

사고 해역에는 이날 완도와 여수, 제주,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23척, 해군 9척 등 모두 32척의 함정이 동원돼 바다위를 샅샅이 뒤졌다. 또 해군과 해경 헬기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해상을 맴돌았다.

◇분주한 수색 현장=링스헬기 실종자 수색작업 이틀째인 16일 해경과 해군은 인근 해역에서 헬기 잔해물을 계속 발견했다. 실종된 홍승우(25) 중위의 항공 헬멧도 발견됐지만, 홍중사 등 3명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헬기 몸체에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수색작업에서 해경은 헬기 날개 부분을 비롯한 소형 낙하산, 조종

석 의자, 헬기 내부 파편 등 헬기 잔해물을 거둬들이고 3함에 인계했다.

해경은 해상에 북서풍이 초당 8~10m, 파고 1.5m, 가시거리 400m로 양호해지자 조종사 권태하(32) 대위의 시신이 발견된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 동쪽 2.2km 인근 해역에 대한 집중 수색을 벌였다.

◇무슨 일 하고 있었나=적군(敵軍)의 잠수함을 감시하는 것이 주요 임무인 링스헬기가 추락하면서 사고 당시의 임무와 원인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군 당국은 해군본부에서 사고조사반을 긴급 편성,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링스헬기는 순항속도 234km/h, 최대 체공시간 2시간50분으로 대잠수함·대함 작전에 적합한 무장과 항공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다. 수상함정에 탑재돼 대잠수함 작전 또는 대수상 용도로 운영된다.

해군은 지난 1990년대부터 링스헬기 25기를 도입, 공개토탈양급 구축

함과 총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등에서 운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평상시 초계활동을 위해 전날 오후 8시에 이륙해 2시간 가량 비행구역을 순회한 뒤 북귀할 예정이었다"며 "3함에는 평시와 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사고 헬기가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자정 무렵 발견된 조종사 권 대위의 시신은 이날 오전 3함에 걸쳐 함평 국군병원에 안치됐다.

권 대위는 목포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2001년 사관후보생 96기로 입관했다. 그동안 6항공전단, 제주와 견대, 3 항공지원대 비행대장 등을 거치며 총 비행시간만 1천308시간의 경력을 갖고 있다.

권 대위는 2008년 유실된 여선과 2009년 북한의 무인 전마선(傳馬船)을 최초 식별한 조종사로 알려졌다. 그는 부인과 한 살배기 딸이 있다.



사고 헬기와 같은 기종인 한국 해군의 링스(LYNX) 헬기. /연합뉴스



16일 오후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 앞 해상에서 추락한 링스헬기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선 목포해양경찰서 경비정에서 망원경으로 주변 해역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또 군(軍)사고...시민들 불안=시민들은 헬기 추락 소식을 접한 뒤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함 사고의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데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사원 김모(35·광주시 광산구)씨는 "잊따라 군에서 사고가 발생해 젊은이들이 숨지는 것을 지켜보는 게 가슴아프다"며 "군 기강이 딱바로 서

서 더 이상은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 4·19 50주년 기념식

19일 10시 광주공원

독재정권에 항거한 4·19 혁명정신을 기리기 위해 19일 오전 10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제50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열린다.

광주시가 주관하는 이날 기념식은 박광대 광주시장과 4·19 관련단체 회원, 시민, 학생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공원 시민회관 내 4·19 영령 추모비를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4·19 민주혁명희 광주·전라 지방장의 경과보고, 4·19 민주혁명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 기념사, 4·19의 노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18일에는 오후 3시부터 광주공원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4·19 민주혁명 5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주관으로 추모제가 열린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념식에서 4·19 혁명에 주도적 역할을 한 공로자 272명(사망자 포함)에 대해 건국포장을 수여한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공로자는 강영원·구양술·김영갑·박재주·안익현·이진규·전해룡·정철기 등 8명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홍악범 수사중에도

### 언론에 얼굴 공개

법무부는 성폭력범 등 홍악범피자에 한해 수사 중이라도 얼굴과 신상 정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홍악범피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한 성폭력범피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 재범방지 등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 전이라도 살인과 성폭력, 연쇄살인 등 홍악범피의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쇠꼬챙이로 교회 현금 120만원 슬쩍

○광주북부경찰은 16일 교회 현금함에 테이프를 붙인 쇠꼬챙이를 집어넣어 금품을 훔친 김모(46)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에 광주시 서구 한 교회에 들어가 현금함 투입구에 테이프가 붙은 쇠꼬챙이를 집어넣어 현금 3만9천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총 120여만원을 훔친 혐의.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나는 김씨를 목격한 교회 신도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를 검거.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국민들 가슴에 묻고...대한민국은 애도 중

## 모교서...야구장에서...광주·전남 곳곳 천안함 희생 장병 추모 물결

"선배님, 대한민국을 지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선 편히 쉬십시오"

16일 오전 10시 고 이상민 병장의 모교인 순천시 가곡동 순천제일고등학교에선 이 병장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다.

각 교실과 교무실에서 진행된 추모식에서 991명의 후배들은 이 병장의 명복을 비는 추모사 낭독과 함께 목욕을 했다. 후배들은 이 병장의 약력 등을 소개하는 대목에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 학교 이응식 교장은 "3회 졸업생인 이 병장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추모식을 마련했다"면서 "부디 하늘나라에선 아무 걱정없이 편히 지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곡성출신 고 정중을 중사의 모교인 인천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도 이날 교내에 추모 현수막을 내걸고, 정 중사의 명복을 비는 추모식을 가졌다.

천안함 희생자의 모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추모행사는 광주·전남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성금모금과 함께 분향소 설치 등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군전우회 광주·전남지부는 조만간 광주역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한편 지난 12일부터 모금한 성금을 유족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UDT 광주·전남 전우회도 해군의 추모행사에 참여해 전우들의 희생을 애도하기로 했다.

이날 광주에서 열린 프루야 KIA-LG 전에서는 경기에 앞서 독념 등 추모의 시간을 갖고 과도한 단체응원을 자제했으며, 선수단 전원과 심판진은 검은 리본을 달고 경기에 임했다.

인터넷에도 천안함 장병의 희생을 기리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다음 아고라 등 네티즌들이 자주 찾는 게시판에는 희생자를 기리는 수많은 추모의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 'HERO'는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당신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글을 남겼다.

광주·전남지역 순국 장병의 인터넷 미니 홈페이지에도 애도의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 정중을 중사의 미니홈피에는 지인 김

성순씨가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다, 이젠 아니잖아"라는 글을 올리셨으며, 후배 심민씨는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나요. 올해 결혼 날짜 잡았는데 형이 오셨어야 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누리꾼 이은아씨는 "당신은 바다가 고향이었던 멋진 해군이셨습니다. 하늘에선 행복하시길..."이라는 추모의 글을 올렸다.

고흥출신 고 강준 중사의 미니홈피에도 지인 김재홍씨가 "준아~ 넌 이제 사진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결혼식 때 친구들 많이 데려오라고 하더니... 너에 대한 추억은 항상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며"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천안함 희생 장병의 시신 36구가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 임시 안치소에 안치된 가운데 16일 오전 2함에 인근 군인 아파트에 조기가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9분 해질 19시 06분 달돋이 07시 13분 달짐 22시 08분

**일교차 커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나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3/19℃
목포	맑음	2/16℃
여수	맑음	7/16℃
완도	맑음	2/18℃
구례	맑음	-1/20℃
해남	맑음	0/19℃
장흥	맑음	0/19℃
고흥	맑음	1/18℃
순천	맑음	3/18℃
영광	맑음	1/17℃
전주	맑음	1/18℃
전주	맑음	1/18℃
남원	맑음	-1/18℃
옥산도	맑음	5/14℃

지역	풍향	파고	지외선	식중독	황사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	☠	☁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0.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	☠	☁

◇주간 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8/20	11/18	13/22	13/19	12/19	10/20

**패밀리랜드에 '탱크'**  
해병대광주시연합회 '시민들에 안보교육'

광주 금호패밀리랜드에 전차(탱크)가 전시됐다. 해병대 광주시연합회(회장 류재천)는 최근 국방부에서 기증받은 전차를 광주시 북구 금호패밀리랜드 입구 광장에 배치했다.

해병대 광주시연합회는 안보교육을 목적으로 국방부에 수차례 건의한 끝에 전차를 기증받았으며, 내년에는 수목 장갑차 등도 기증받아 전시할 계획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전차된 전차는 미국에서 제작된 M48A2C 기종으로 1970년대 초 국내에 400여대가 배치됐으며, 무게 44.6t, 길이 8.69m, 폭 3.63m, 높이 3.18m다. 류재천 해병대 광주시연합회장은 "광주시민과 학생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전차를 전시하게 됐다"면서 "전시된 전차는 운행이 가능할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다"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증도대교 공사중 인부 2명 추락사**

신안군 증도대교에서 크레인에 의지해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크레인 연결부위가 끊어지면서 다리 아래로 추락, 2명이 숨졌다.

16일 오전 9시20분께 신안군 증도 증도대교 공사현장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인부 이모(52)씨와 조모(45)씨가 15m 대교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씨 등은 증도에서 지도 방향으로 100m 떨어진 다리 오른쪽에서 크레인 연결부인 바스켓(고층 작업용 박스)에 탄 채 허공에서 빗물배관을 설치하던 중 크레인 중간 부위가 부러지면서 바스켓에 탄 채 그대로 추락했다.

사고가 난 크레인은 5t짜리 화물차에 설치돼 있었으며, 회사 측이 작업 중 활동반경을 넓히기 위해 용접방식을 하던 인부 이모(52)씨와 조모(45)씨가 15m 대교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씨 등은 증도에서 지도 방향으로 100m 떨어진 다리 오른쪽에서 크레인 연결부인 바스켓(고층 작업용 박스)에 탄 채 허공에서 빗물배관을 설치하던 중 크레인 중간 부위가 부러지면서 바스켓에 탄 채 그대로 추락했다.

16일 오후 8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슈퍼마켓에서 한 남성이 가게 주인 김모(여·56)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